

한·칠레 FTA 추진의 의의와 주류산업에 대한 시사점

1. 한·칠레 FTA의 추진 현황



정 인 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박사〉

지난해 11월 5일 국무총리 주재 對外經濟調整委員會가 칠레와의 自由貿易協定(FTA)을 추진하기로 의결한 후 우리나라도 FTA를 대외경제정책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퀴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기간중 김대중대통령과 칠레의 Frei 대통령은 양국정상회의에서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FTA 추진방안을 모색키로 하였고, '한·칠레 FTA 추진을 위한 실무협약'이 98년 12월 2-3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의제로는 한국과 칠레의 경제상황에 대한 일반적 의견교환, 칠레의 FTA 운용사례에 대한 정보교환 및 한-칠레 FTA 추진을 위한 기본 Framework의 협의 등을 들 수 있다. 양국간의 협의결과를 요약하면, 협상의 기본원칙은 양국간 협정이 포괄적(Comprehensive)이어야 하며, 자유화의 범위는 최대한 넓히고, 협상 및 이행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협상의 대상범위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분쟁해결절차 등을 포괄하도록 하고, 협상추진체계로는 고위급 작업반을 두고, 그 산하에 시장접근, 무역규범, 서비스 및 투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정책, 분쟁해결 및 기타 법률문제 등 5개 그룹

■ 목 차 ■

1. 한·칠레FTA의 추진 현황
2. 한·칠레 FTA의 의의
3. 칠레의 포도주산업의 현황
4. 우리나라 주류산업에 대한 시사점

을 두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경제현황과 체제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해 양국의 고위급 실무 작업반(HLWG)이 상호교환방문기로 하였다.

따라서 칠레의 작업반이 금년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였고, 우리나라 작업반은 6월 21일에서 23까지 산티아고를 방문하였다. 제1차 HLWG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먼저, 시장접근그룹에서는 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현황 파악 및 농업 등 이해관계품목의 확인, 양국의 조정관세 철폐계획 및 신속통관절차의 필요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원산지별, 상품품목별 통관절차와 이의제기의 절차, 우회수출의 단속방법, 양국 세관간의 협조방안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교환하였다. 무역규범그룹에서는 양자간 세이프가드 운영사례, 캐나다-칠레 FTA에서 반덤핑제도를 유지하지 않는 이유, 칠레의 광산물 특히 구리에 부과되는 보조금, 한국의 관세환급 제도와 WTO 보조금 협정과 관계 등을 논의하였다.

서비스 및 투자그룹에서는 캐나다-칠레 FTA에서 금융이 제외된 이유, 건설 및 해운 서비스 개방현황, 한국의 서비스 시장규모, 서비스관련 규제제도,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통신위원회의 권한, 칠레내의 외국인 투자자 보호제도와 MAI 협정과 관계, 외국인 투자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최근 한국의 외환거래제도의 개정내용,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원센터의 기능 및 외국인 투자 지역제도 등 광범위한 이슈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다. 지적재산권 및 정부조달에 대한 회의에서는 WTO/TRIPs 협정에 대한 칠레의 이행계획과 상표권 보호방안, 칠레의 WTO/정부조달협정 가입계획 및 칠레내의 정부조달 시장규모, 칠레의 독점규제방안과 관련법령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분쟁 및 기타 법률문제그룹에서 한국측은 칠레가 기체결한 FTA들에서

분쟁해결 운용사례에 대해, 칠레측은 한국의 국내법률과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의 우선순위에 대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질의하였다. 각 작업별로 이루어진 회의에서 양국의 대표들은 상대방의 질문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였고, 이러한 질문과 답변들이 향후 협상의 조기타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난 6월말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2차 HLWG에서 양국의 대표들은 한-칠레 FTA 추진을 위한 Framework Agreement에 대해 칠레의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측의 입장을 개진하여 상호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논의내용은 향후 FTA 추진일정과 협상방식을 정하는 것이었으며, 동 회의에서 잠정 합의된 내용은 공식협상 선언, 사용언어, 협상장소, 협상주기, 협상작업반 구성, 협상사무국 설치문제, 협상 text 선정 등이었다.

이슈별 합의사항으로는 공식협상 선언은 금년 9월 뉴질랜드 APEC 정상회의를 활용키로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이를 위해 양국실무진이 노력하기로 하였다. 공식사용 언어는 제1차 실무회의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영어를 사용하기로 하였고, 협상장소는 원칙적으로 양국의 수도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분야에 따라서는 뉴라운드의 회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식협상은 원칙적으로 10주마다 진행키로 하되, 작업반별로 적절한 주기로 만나 협상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지난해 11월 실무회의에서 협의된 협상조직은 제2차 HLWG 회의에서 다소 변경되었는 바, 새로 확정된 협상조직은 시장접근그룹(관세, 비관세, 원산지,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기술장벽그룹(표준 및 인증, SPS), 서비스 및 투자그룹(국경간 공급, 투자, 통신, 항공운수, 기업인 일시입국), 기타무역관련그룹(지적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및 분쟁해결 및 조직그룹

(분쟁해결, 조문 및 조항 정리)이다. 사무국은 한 국가가 협상타결시까지 운영하는 경우와 양국이 교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였으나, 당분간 양국이 교대로 운영하고 향후 논의를 재개키로 하였다. 협상기준시점은 협상개시일(칠레안)과 2000년 1월 1일(우리측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보지 못하고 향후 논의키로 하였다. 작업반별로도 회의를 가졌는 바, 주요내용은 제1차 HLWG 회의에서 미진했던 분야를 보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2 한·칠레 FTA의 의의

세계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있고,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 추세 또한 강화되고 있다. 또한 세계경제가 탈냉전시대를 맞아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각국은 FTA 체결 등과 같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배타적인 지역무역블럭이 역외국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면서 FTA 체결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수출증가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거점지역 진출확대를 염두에 둔 전략적인 FTA 체결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존자원과 생산자본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수출지향적인 성장전략의 채택으로 그동안 고속성장을 달성하였으나,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대외여건의 악화가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형성하였다.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찾을 수 있

나,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들의 금융위기의 파급효과로 우리나라의 금융위기가 발생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미국과 EU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내수침체나 반덤핑조치 등 무역제한조치의 도입 등도 우리나라의 수출부진과 이에 따른 국내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안정적인 대외무역기반을 확보하여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고려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기업은 중저가 제품의 대량생산체제를 통해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왔으나 중국, 동남아 등 저임금국가들과의 가격경쟁력과 선진국과의 품질경쟁력에서 뒤졌다. 즉, 선진기업들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후발 개도국들은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제고로 우리의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제조기술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생산체제를 첨단기술중심의 생산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재 외국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능력의 결합을 통하여 생산구조의 고도화와 수출능력 배양이 절실한 바,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선진기업들과의 제휴를 증대시키는 유인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제도중 국제규범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은 외국기업과의 교역이나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즉, 관세의 점진적 인하 및 국내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국내시장 보호가 문제로 제기되기보다는 우리나라 경제제도의 불확실함이나 국제기준과의 불일치를 이유로 통상분쟁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의 FTA 체결시 국내제도의 국제기준 합치가 선행되어야하므로,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경제제도가 투명해지고 통상분

〈표 1〉

지역무역협정의 통보현황

1948- 1954	1955- 1959	1960- 1964	1965- 1969	1970- 1974	1975- 1979	1980- 1984	1985- 1989	1990- 1994	1995- 1996
2	3	12	9	21	19	6	5	33	35

쟁 요인이 감소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기업들도 선진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어 경영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주요 선진국가들이 다자체제인 WTO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이 오히려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심화에 더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GATT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1997년말 현재 145개이며, 이중 실제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도 80여개에 달하며, WTO가 출범한 95년 이후에도 35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90년대 이후 지역무역협정은 그 數에서나 적용범위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확대 및 심화를 보이고 있으며, Bergsten(1997)에 따르면 1994년 세계무역의 61% 이상이 지역무역협정의 영향하에 있다.

최근에는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몇 개의 블록으로 재편되어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95년 EFTA 국가 중에서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으로의 회원국 확대에 이어 동구국가들의 추가 가입협상도 진행중이다. 또한 단일시장을 지향하는 EU는 서유럽 전체를 포괄한 상태에서 중·동구권으로 확대되는 일방 EMU체제의 출범을 통해 통화정책의 통합도 도모하고 있다. 94년에 출범한 NAFTA는 칠레의 NAFTA 가입, 북미지역과 남미지역을 잇는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위한 논의로 발전되고

있다. 현재 한국, 일본, 홍콩을 제외한 WTO 회원국들은 하나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은 GATT 제24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혜무역협정에 해당되어 현실적으로 폐지가 곤란한 실체라는 점에서 한국은 다른 WTO 회원국이 누리는 호혜적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지역무역협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의 장점을 강조하여 왔으나, 다자주의를 주창하는 일부 학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WTO를 통해 지역무역협정의 역외국 차별요소를 제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지역무역협정은 그 자체로 역외국에 대한 차별요소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바, WTO는 '96년도에 지역무역협정위원회를 설립하여 GATT 제24조와 "GATT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를 근거로 차별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중이다. 그러나 지역블록에 소속된 대다수 국가들의 관심부족으로 효율적인 검토작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지역협정위원회를 통하여 지역블록 확산을 견제함에는 한계가 있는바,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지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할 필요가 크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협정은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자유화도 포함하므로 역내간의 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주요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시장에 진출키 위해 우리나라를 거점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신규투자 수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투자의 유치는 국내 투자제도의 완비와 시장규모가 중요한 바, FTA 체결을 통해 국내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수출하려는 해외기업들은 무관세 혜택을 누리키 위해 우리나라에 투자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FTA체결을 통해 상대국의 투자 가능한 분야가 확대되고 투자보장이 강화됨으로써 우리기업의 안정적인 투자활동이 이루어진다. 우리기업들은 해당국을 거점지역으로 삼아 주변국가들의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국이 다수국과 FTA를 체결한 경우 무관세 특혜를 받는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3. 칠레의 포도주산업의 현황

칠레의 주류산업의 대부분을 포도주가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포도주를 중심으로 칠레의 주류산업을 소개하기로 한다.

1) 배경 및 지리적 요건

칠레의 포도주 사업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칠레산 포도주의 역사는 18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50년 유럽지역에는 포도나무 해충이 발생하여 포도생산이 불가능하게 되자, 세계 최대 와인 생산국인 프랑스는 포도재배를 위한 이상적인 기후와 조건을 갖춘 칠레를 주목하게 된다. 이때부터 칠레는 유럽의 품격높은 재래품종들을 도입했으며, 또한 프랑

스의 포도주 전문가들이 칠레로 대거 이주하기 시작해 칠레는 프랑스산, 미국 캘리포니아산 포도주에 버금가는 포도주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칠레의 포도재배는 대부분 중부지방에서 이루어진다. 칠레의 중부지방은 북쪽의 아타카마사막, 남쪽의 파타고니아 사막, 서쪽의 태평양 연안, 그리고 동쪽에는 안데스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 포도를 경작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칠레의 포도는 칠레전역에 산재해 있으나 아콩카과 지역, 중부의 계곡지역(라펠, 쿠리코, 마울레 계곡)과 비오비강을 중심으로 퍼져있는 남부지역 등에서 경작된다.

2) 포도재배

1996년 포도경작지는 5만 6,004 헥타르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 매년 1만 헥타르 이상의 경작지가 포도재배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었다¹⁾. 그러나 1997년 포도경작지는 12만 3,100 헥타르로 크게 늘어났다. 이중 6만 3,500 헥타르의 경작지에서 Fine wine을 위한 포도가 생산되었고, 4만 9,500 헥타르에서 Table wine을 위한 포도가 생산되었다. 또한 1만 헥타르 정도의 경작지에서 pisco(칠레산 증류주)생산을 위한 포도가 경작되었다. 이 칠레산 포도주는 질에 비해 가격이 낮은 것으로 유명하다. 그 이유는 경작지당 포도 단위 생산량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 높은 때문이다. 예를 들면 1헥타르의 땅에서 생산되는 cabenet 포도는 프랑스의 같은 면적에서 생산되는 양의 두배에 해당한다. 즉, 1 헥타르의 경작지에서 칠레는 1만 kg의 포도생산이 가능한 반면 프랑스는 5000kg이상을 생산해 내기 어렵다. 이것은 칠

1) Prochile, Trade and investment guide-wine

〈표 2〉

포도 경작지, 1990-1997(hectares)

연 도	Fine wine	Table wine	Pisco	총 계
1990	65,202	48,218	6,506	119,926
1991	64,850	47,900	7,423	120,173
1992	63,106	49,840	7,795	120,741
1993	53,093	49,333	8,226	110,652
1994	54,146	49,305	9,087	112,538
1995	54,393	49,803	9,385	113,581
1996	56,004	50,435	9,726	116,165
1997	63,543	49,549	10,003	123,095

자료: 칠레 농림부, Investment opportunity in Agribusiness

레가 포도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3) 포도주 생산

칠레의 포도주 생산은 Fine wine 생산과 Table wine 생산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확장되고 있는 포도 경작지는 Fine wine 생산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Fine wine에 대한 해외 수요가 늘고 있어 앞으로 생산이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Fine wine 생산은 소비자의 수입수준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고급(high end)시장이 주 타깃이다. Table wine은 90%가 칠레에서 소비되며, 상당한 정도의 경작지가 Table wine 생산을 위해 사용된다. Table wine의 수요는 저 알코올 주류, 즉 맥주에 의해 대체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칠레 내에서도 동 상품의 가격은 하락추세에 있으며, 경작지도 줄어들고 있다. 1997년 칠레산 포도주는 Table wine과 Fine wine을 합쳐 4억3천만 리터가 생산되었다. 이 중 Fine wine

은 1991년 이래로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1997년에는 총 생산량 중에서 88.6%의 비중을 차지하여 Table wine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동 수치는 1990년 2억 8220만 리터보다 무려 52.62%가 증가한 것이다. 칠레가 포도주를 생산하고 수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주요 소비시장과 지리적으로 멀다는 것이다. 따라서 칠레는 포도주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리적 불리함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4) 칠레산 포도주 상품

칠레는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몇 년전까지는 'chuiço'라는 칠레의 전통적인 용기에 담긴 'Tinto' 혹은 'Blanco'라는 이름의 포도주가 가장 많이 소비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리미엄 와인들은 정통 유럽형 병에 담겨져 리퀴 스토어,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호텔 등지에서 판매되었다. 이러한 와인들은 대부분 프랑스에서 전파된 것으로 Carbernet sauvignon, Borgona(burgundy),

〈표 3〉 포도주 생산, 1991-1997(millions of liters)

연 도	Fine wine(A)	Table wine(B)	(A) + (B)	PISCO
1991	237.4	44.8	282.2	73.1
1992	212.8	103.8	316.5	95.0
1993	224.0	106.3	330.3	108.3
1994	276.7	83.2	316.7	121.6
1995	290.9	25.8	359.8	129.6
1996	337.3	45.1	382.4	143.6
1997	381.5	49.2	430.7	131.8

자료: 칠레 농림부, Investment opportunity in Agribusiness

〈표 4〉 포도주생산에 따른 칠레의 포도경작지 비율, 1997

포도주	Cab. Sauvignon	Sauvignon Bl	Chardonnay	Meriot	Pinot Noir	Riesling	Chenin Bl
비율(%)	46.5	19.1	16.2	15.7	1.2	1.0	0.3

자료: 칠레 농축산청,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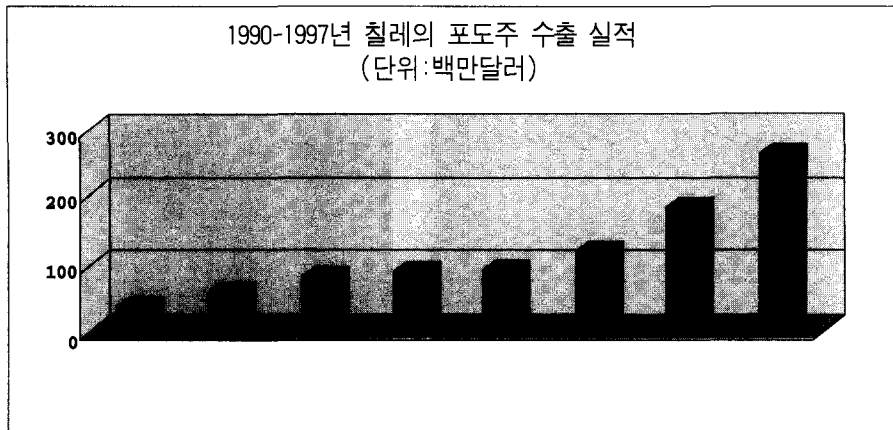
Chardonnay, Meriot, Pommard, Pinot noir, Riesling, Rhine, Chablis, Sauvignon blanc, Semillion, Sauterns 등의 상품들이다. 이 중에서 칠레에서 생산되는 가장 중요한 포도주는 적색 포도주인 Carbernet sauvignon과 Meriot, 그리고 백색 포도주인 Chardonnay와 Sauvignon blanc이다. 1997년 칠레의 포도경작지중 47% 정도가 Carbernet sauvignon 생산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Sauvignon blanc 생산을 위한 경작지가 총 프리미엄 포도경작지의 19.2%를 차지하고 있다.

5) 포도주 수출 현황

칠레 국내에서 생산된 포도주의 약 60% 정도가 수출된다. 이 중 90% 정도가 Fine wine이다. 칠레산 Fine wine의 생산은 세계수출시장에서 단지 3%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경쟁력 있는 가격과 포도주의 질을 유지한다면 칠레는 5%까지 증대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1985년부터 1995년 사이에 칠레는 포도주산업에 있어서 기록적인 수출증가를 경험했다. 리터로 계산하면 약 10년간 1,156%, 달러로 계산하면 무려 1,640%가 증가하였다. 1996년 칠레산 포도주의 해외 판매는 전년보다 63%가 향상된 2억 8,50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1997년에는 44.1%

2) bulk와인과 bottled와인의 수출을 합친 수치임. 자료:prochile, Trade & Investment guide-wine

(Graph 1)



로 향상된 4억 2,390만 달러에 달했다²⁾

포도주 산업은 특히 최근 수년사이 급격히 성장했다. 예를 들어보면 1990년 'appellation d'origine' 와인 수출은 3,860만 달러정도였으나 1997년에는 2억 6,840만 달러로 거의 600% 가까이 성장하였다(Graph 1 참조). 1997년에 fine와인은 88개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으로 총수출에서 각각 21%, 29%, 6.3%의 수출을 차지하였다 <표 5> 참조). 폭발적인 수출 증가의 원인은 고급질의 다양한 포도 사용과 포도주 질의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그리고 고급 포도주 시장의 진출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칠레는 포도주 수출에 있어서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칠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미국의 와인 수입국중 3위이며, 캐나다에서는 5번째로 중요한 와인 수입국이다. 칠레는 1997년 9,470만 달러에 달하는 거품와인(Sparkling wine)과 병포도주를 1억 리터 이상 미국에 수출했다. 현재 전 세계 80여개국에 칠레산 포도주를 수입하고 있다.

1998년에도 역시 칠레의 포도주 수출은 성장세를 유지했다. 7월과 8월에는 성장세가 주춤했으나 9월부터는 예년과 같은 성장을 보였다. (일반적인 통계에 따르면 칠레 포도주의

수출은 북반구 지역의 날씨가 포도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연말 3개월 동안에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1998년에는 5억 1,500만 리터가 생산되었으며, 전년도보다 48.30% 증가한 2억 4,880만 리터의 포도주가 수출되었다.

그러나 1999년에는 포도의 과잉생산과 포도주의 수요 감소, 아시아 경제위기 등으로 인하여 포도주 수출의 예측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기관마다 전망치가 조금씩 다르며 대부분 5-10% 정도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칠레와인수출연합은 1999년 포도주 수출은 10%를 넘지 않는 정도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가격 상승도 예측했다.

6) 포도주 산업의 투자

유럽의 대규모 포도주생산 업체들은 칠레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최신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포도생산을 위한 칠레의 유리한 자연조건과 더불어 안정적인 경제상황과 성장 잠재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Bodegas torres(스페인)이나 Chateau Lafitte(프랑스)등은 오래전부터 칠레 포도주 산업과 관련을 가져왔다. 현재는 Robert

〈표 5〉 Bottled wine의 주요수출대상국 및 수출액, 1997 (U.S million dollars)

수출대상국	금 액	비 율
미 국	56.1	20.9
영 국	53.8	20
일 본	16.8	6.2
캐나다	13.5	5.0
덴마크	12.2	4.5
독 일	12.1	4.5
네덜란드	11.4	4.3
스웨덴	9.8	3.7
노르웨이	7.4	2.8
아일랜드	6.6	2.5
브라질	6.3	2.3
멕시코	5.8	2.1
핀란드	5.6	1.9
총 계	268.3	100

자료: Prochile, Trade and Investment Guide

mondevi, Pernoid ricardo, Kendall-Jackson, Chateau Larose-trintaudon, Paul Pntalier, BrunoPrat, Grand Marnier 등의 회사가 칠레 포도주 산업에 상당한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칠레 포도주 생산업자들과 Joint-venture의 형식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칠레의 이상적인 기후조건을 이용한 고급, 고가 포도주의 연중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7) 칠레 경제에 있어서 포도주 산업의 중요성

농림생산물에서 과일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17%에 해당한다. 칠레는 다양한 과일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 사과, 배 등이다. 과일 생산은 수출과 직결되는데 칠레의 Table 포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국 중 하나이다. 1996/1997년에 Table 포도는 전체 과일 수출의 40.01%를 차지한다.

칠레 정부는 2000년까지 매년 포도주 수출을 5억 달러정도까지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칠레 경제 중 포도주가 차지하는 위치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실제로 칠레의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농산업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현재 농산업 수출가운데 와인수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1997년에는 Appellation d'origine 와인이 2억 6,840만 달러의 수출로 전체 21.3%를 차지했으며, 그밖의

〈표 6〉

농산업 수출 현황, 1997

상 품	수 출 가 치 (U.S. million달러)	비율(%)
Appellation d'origin wines	268.4	21.3
기타 와인과 포도액	78.952	6.3
토마토 주스 및 퓨레	72.047	5.7
용기에 든 기타 와인 및 포도액	57.083	4.5
발효시키지 않은 사과 주스	47.456	3.8
건포도	41.564	3.3
요리되지 않은 파스타	32.992	2.6
깡통 복숭아	30.838	2.5
라즈베리, 블랙베리	26.785	2.1
기타 야채주스 및 과일	25.087	2.0
기 타	579,003	46.0
총 계	1,260,171	100.0

자료: 칠레중앙은행

와인과 포도액 수출이 7억 8,950만 달러로 6.3%를 차지하고 있다.

4. 우리나라 주류산업에 대한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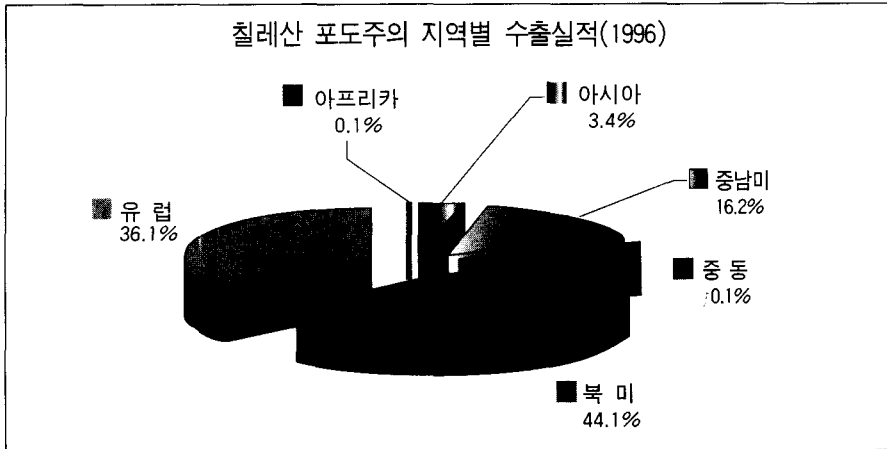
8) 포도주에 부과되는 조세 및 담당 기관

칠레의 포도주 생산을 관장하는 기관은 '농축산청(SAG)'이며, SAG는 칠레산 포도주의 질과 음료가능 여부에 대한 인증을 담당한다. 칠레산 포도주는 가스를 포함한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의 여부에 관계없이, 또한 용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의 부가세를 적용받는다. 비 알콜성 음료의 경우에는 13%의 세율이 부과된다.

칠레산 포도주의 주요 수요지역은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과 유럽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1996년 당시 아시아 지역은 전체 수출의 3.4% 정도를 차지했다(Graph 2 참조). 그러나 칠레산 포도주에 대한 아시아 지역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타일랜드의 경우 칠레산 포도주 수요가 전년과 비교해 볼 때 1996년에는 500% 가까이 증가했으며, 아시아지역의 최대 수요국인 일본도 400%이상이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10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³⁾.

3) PROCHILE. 보고용 자료 "Bottled wine exports variation of 1995/96 in Asia"

(Graph 2)



칠레와인수출협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에 따라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아시아국가들의 풍부한 인구나 높은 소비수준을 고려하여 아시아를 포도주의 잠재적 소비시장으로 규정하고 수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적색포도주가 건강에 좋다는 의견과 함께 소비자 취향의 변화가 일고 있는 일본을 주목하고 있다⁴⁾. 또한 칠레산 포도주는 저가에 고급 포도주를 제공하므로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신장을 기대할 만하다. 실제로 칠레산 포도주 중 병당 25 달러가 넘는 포도주는 5-10 종류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의 경우 점차 저 알콜함유주류의 소비가 많아짐에 따라 포도주의 소비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칠레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중의 하나로는 비철금속⁵⁾중심의 기존의 수출구조를 공산품, 농산물 등의 수출확대로 수출구조를 다양화하려는 데 있다. 특히 칠레산 포도와 포도주는 국제경쟁력이 있으며

로 동 품목의 수출증가에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칠레산 포도주는 몇 년전에 국내에 수입되어 시판되고 있으나, 아직은 수입규모가 작다. 그러나 앞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칠레산 포도주의 가격이 프랑스산 포도주의 1/3 이하의 가격에 비해 품질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수입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입산 포도주와 포도원액에 대해 기본관세가 30%로 높은 편이므로, 향후 양국간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칠레는 아시아지역 수출확대를 위해 자국산 와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칠레산 와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개선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업체들도 정부가 추진중인 양국간 FTA 정책의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Sebastian Bisquertt, CAV포도협회 회장의 의견,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 Report 발췌
5) 구리를 포함한 비철금속의 수입이 우리나라의 대칠레 총수입의 절반이상을 차지함.